

식물요법(Phytotherapy)

만성 위질환

저자 **황완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

개요

만성 위 질환의 원인은 알 수가 없으며 독자적인 발병원인을 가지기 때문에 기질적, 정신신체의학적 원인에 의한 기능성 자극위 또는 신경성 위 질환이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정신과 위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만성 위 질환의 원인이 주로 불안, 초조, 긴장 등의 정신적 상태에서 온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대인의 억압된 상태가 신체적 증후로 인한 소화불량인 만성 위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만성 위 질환은 체질적인 요소, 식이, 환경인자 그리고 정신적인 영향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며 간단한 식물요법이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상 서술한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식물요법제로는 위액의 분비 및 산의 생성을 촉진하는 생약, 위점막을 보호하는 생약, 진경 및 구풍의 효과를 가지는 생약 등이 있다. 먼저 위액의 분비 및 산의 생성을 촉진하는 고미(amara)의 식물요법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키워드

고미강장약, 용담, 마전자, 방향성 고미약, 창포, 자극성 고미약, 생강

위액 및 위산 생성을 촉진하는 식물요법제에는 고미질을 함유하는 식물이 많다. 고미 생약의 경우에는 고미 성분 외에 다른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미질에 의해 위액의 분비가 현저히 촉진되고 전신의 긴장이 높아진다. 특히 교감신경의 특이한 흥분성 상승과 심장의 활동량 증가 등 흥분성 기전이 신경원성의 근육을 긴장시키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또한 식욕촉진 작용이 있는 것은 고미 성분이 복부 장기의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위뿐만 아니라 전신을 흥분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감염증 후에 나타나는 기능성 소화불량에서 긴장을 높이는데 적당하며 체질적 소화불량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자율신경실조에 의한 허약체질의 소화불량에 있어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고미약은 유럽의 1, 2, 3차 진료기관 또는 외래 등에서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처방하는 식물성 약제이다. 주로 위질환의 경우 소식(小食)을 여러 번 하도록 하며 고형식물(固形食物)을 먹도록 하는데, 이것은 고형 음식물이 위의 체류시간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식사 전 고미제를 투여하면 위액의 분비 및 흥분작용이 있게 되어 병세가 호전되며, 마실 때는 뜨거운 것보다 차게 해서 먹는 것이 좋다.

소아의 식욕부진의 경우 기질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적 장애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정신병리학적 요인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때 단방의 고미제를 식사 전 계속 투여하면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1. 고미강장약(Amara tonica)

우리가 처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고미강장약(Amara tonica)은 용담으로 강장고미약, 건위제 또는 식욕촉진제로 불리며 엄밀히 구분할 수는 없다. 용담류(*Gentiana scabra*, *G. macrophylla*)는 우리나라 및 중국에서 용담 또는 진교로 재배 또는 자생한다. 유럽에서 재배되는 것은 겐티아나(*G. lutea*)로 여러 종이 있다.



용담

진교

용담은 순고미약 타입으로 20,000배 희석을 하여도 고미를 나타낸다. 이 수치는 지금까지 발견된 고미 생약 중 최고의 고미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수렴성이나 위자극성은 전혀 없고 긴장을 높이는 작용만 가지고 있다.

사용 부위는 뿌리로 gentiopicroside가 고미질의 주성분이다. 유럽의 산악지방에는 겐티아나 리코르(도수가 높은 술의 일종)라 하여 칵테일로도 매우 인기가 있다. 소화 곤란 등의 각종 음식물의 내인성에 사용하며, 위의 분비운동 및 긴장성을 자극, 개선한다. 다만 위산과다가 있는 과민성 위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체형으로는 뿌리를 다제로서 끓여서 복용하기도 하고, 액기스를 0.5~0.2g씩 환제로 만들어 복용하거나 토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외에 동남아시아의 식물인 마전자(*Strychnos nux-vomica*) 또는 보두(*Strychnos ignatii*)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다량 사용 시 신경계에 강력한 흥분작용을 가져오며 소량에서는 긴장을 높여 고미약으로 사용된다.

2. 방향성 고미약(Amara aromatica)

여러 생약 중 만성 위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방향성 고미약인 창포가 대표적이다. 이런 고미약을 방향성 고미약이라 칭하는 것은 고미질 외에 정유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작용은 고미성분에 의한 건위작용 및 식욕촉진작용외에 진경, 구풍, 담즙분비 촉진작용이 있다.

창포(*Acorus calamus*, *A. gramineus*)는 연못, 강가 등에서 야생 또는 재배되며, 유럽에는 원래 자생하지 않았으나 16세기경 유럽에 소개되었다.

사용 부위는 근경으로 Calami rhizoma 또는 Acori rhizoma라 한다. 식물 전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근경이 특별히 쾌적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 맛 중에는 물론 고미가 다른 맛을 압도하지만 고미강장약의 쓴맛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성분으로는 고미질인 acorin에 1.5~3.5%의 정유와 tannin이 함유되어 있다.



창포

마전자

위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긴장을 높이는 작용과 분비 촉진 작용을 가지며, 또 하나 주목되는 작용으로 식욕 촉진 작용이 있다. 따라서 신경성 거식증 및 무력성 신경증성 아동의 식욕부진에는 창포가 가장 적당하다. 신경성 장애의 소아 배앓이(제선통) 및 이에 따른 식욕부진, 조금 더 적절히 표현하면 소아의 식욕 장애에 여러 방울 창포적제를 식전에 규칙적으로 투여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위암 환자에게 창포를 투여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특히 수술할 수 없는 말기 암환자의 경우 증상이 상당히 호전된다. 현재는 콘듀란고를 사용하나 너무 고미라서 환자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고미가 아닌 방향을 함유한 창포를 사용하면 먹는데 쾌적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형으로는 내복용으로서 창포 다제, 창포 엑기스, 창포 토크, 복방 창포 토크를 매일 사용한다. 또한 창포육의 목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껍질을 벗기지 않은 창포근을 사용하기도 하고 추출한 창포 엑스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근을 잘게 썰어 음편으로 만들어 저작성으로 하면 금연을 하는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때 구강, 인후 및 점막의 긴장을 높여 소아의 치아 및 치육발육에 좋은 효과를 준다. 한편 성분 중 asaron의 경우 발암성이 있다고 보고되어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발암물질인 니트로소아민의 함량이 훈제 생선 및 고기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자극성 고미약(Amara acria)

자극성 고미약은 방향과 매운 맛 그리고 쓴 맛을 동시에 나타냄으로서 위에서 작열감을 나타내는데, 대표적인 자극성 고미약으로는 생강이 있다.



생강

생강(*Zingiber officinale*)은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향신료로서 사용부위는 근경이다. 정유성분이 매운 맛을 나타내며 대표 성분인 gingerol은 신미의 방향제로서 위에서 작열감을 나타낸다. 제형으로는 주로 근경을 알코올로 추출한 tink제가 많이 사용되며, 10~20 방울을 물에 희석하여 식사 시에 복용하도록 한다. 단,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생강은 전신 및 국소적인 긴장을 높여 치료에 도움을 주며, 진경제 및 구풍제로도 사용한다. 진경제의 경우 급성 위질환에도 사용하며 구풍제로서는 위와 장관에 모두 사용한다.

약사 Point

1. 고미강장약(Amara tonica)

: 용담은 건위제 또는 식욕촉진제로 불리며 고미 성분이 복부장기의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위뿐만 아니라 전신을 흥분시킨다. 겐티아나 리코르(술의 일종)라 하여 캅테일로도 매우 인기가 있으며 소화곤란 등의 각종 음식물의 내인성에 사용한다. 위의 분비운동 및 긴장성을 자극, 개선한다. 다만 위산과다가 있는 과민성의 위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방향성 고미약(Amara aromatica)

: 창포는 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긴장을 높이는 작용과 분비 촉진 작용을 가지며, 특히 식욕 촉진도 있다. 따라서 신경성 거식증 및 무력성 신경증성 아동의 식욕부진에는 창포가 좋다. 신경성 장애를 가진 소아의 배앓이(제선통) 및 식욕장애에 여러 방울 창포 적제를 식전에 규칙적으로 투여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3. 자극성 고미약(Amara acria)

: 생강은 자극성의 방향성 고미약으로서 전신 및 국소적인 긴장을 높여 치료에 도움을 준다. 생강은 신미의 방향제로 위에서 작열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근경을 알코올로 추출한 tink제가 많이 사용되며 10~20 방울을 물에 희석하여 식사 시에 복용하는 것이 좋으나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참고문헌

Rudolf Fritz Weib, 1991, Lehrbuch der Phytotherapie, Hippokrates Verlag GmbH